지역정체성 미반영된 역사교육 등 지적 잇따라

국회 교육위, 전북자치도교육청 국정감사

정부 유아 무상교육 예산 삭감 · 전북에듀페이

낮은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 등도 문제제기돼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원한 11만원을 전북교육청이 7만원 삭감했다"며 "대통령이 빚내서 아이들 교육시키라고 준 돈을 시도교육청이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지원금 11만원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며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자체비 무상교육비(16만5000원) 지원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 대비 전국 평균지원금 차액인 11만원을 목표로 편성했기에, 기존에 지급하던 자체비를 16만5,000원 포함해 전액 지급할 경우 과다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정부 11만원 전액과 맞춘 20만5,000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은 자체 무상교육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11만원 전액 지원하는 상황이라 선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전북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도 전북지역의 역사교육이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오늘 직접 덕진공원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김개남 장군의) 추모비를 방문해 봤다"면서 "전북에서 내세울 만한 역사교육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병활동도 있지만 앞서 받아 본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은)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교육자료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았다"며 "광주와 제주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선명한 지역 역사교육 모델이 있는데 전북과 전남은 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이 가진 역사적 특성과 주요한 내용들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동학 관련 교육자료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준혁 의원은 "전북에서 시행하는 에듀페이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잘못 사용되는 비용을 신경써 사업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현금성 지원에는 350억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고통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습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며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파악한바로는 지난 3년간 부정사용은 7건 신고됐다"며 "전북 교육청은 상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학교에서 AI를 가르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국·공립 중·고교 정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학교 정보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인원이 관내 전체 중학교 수보다 많은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수 대비 정보교사 비율인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28%)이었다. 전북의 경우 중학교는 159곳에 달했지만 정보교사는 46명뿐이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재 교원 수가 급감한 데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 정보교사를 배치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상) 작은학교가 많아 정보교사를 배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해는 하지만 AI 시대에 맞춰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학교별로 정보교사 확보 편차에 따른 AI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권한대행은 "저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일단 큰 학교 중심으로는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1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유정기(가운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일까지 '2025 전주교육 나눔한마당 중등 운영 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오는 24일까지 '2025 전주교육나눔한마당 중등 운영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수업 혁신을 실천해 온 교사들의 실제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23일 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는 명사 초청 특강도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인지심리학자인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녀의 학습을 이해하고 돕는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일 진행된 수업 공개에서는 참관 교사들에게 생생한 수업 현장과, 학생 참여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24일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총 9개 팀이 참여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22일 전주근영중학교 조은경 수석교사는 케이팝 열풍의 중심에 선 '데몬헌터스'를 소재로 한 국제교류 수업을 했고, 24일에는 프랑스 학교와의 교류 및 해외 체험학습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행사는 관내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진정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특별 전시 '스며듦' 내달 말까지 진행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5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선정, 11월 30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전시 갤러리에서 특별전시 '스며듦'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전북민족미술인협회가 주관하며, 지역 작가 10명이 참여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주제와 표현 기법을 담은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미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5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생과 지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은성 기자

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수학, 체험 통해 재미있게

25~26일 '전북수학체험한마당'

KBS 전주방송총국서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은 오는 25~26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녹지광장에서 '제16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보고·만지고·생각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 학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및 상담활동부스 △수학대회 △수학산책 등이 있다.

체험 및 상담활동부스에서는 '나는야 좌표평면 미로 게임 마스터!' 등을 비롯한 수학체험 부스 58개, 키즈부스 2개, 학습상담부스 및 가족부스 등 총 70개 부스가 마련됐다.

'수학구조물만들기대회'는 수학적 원리를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드는 대회로, 3인 이내로 구성된 초·중·고교 학생 81개팀이 참여한다.

'수학산책'은 초4~중3을 대상으로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고, 수학 원리 탐구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은 교과서의 틀을 넘어 놀이, 게임, 미술, AI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자신감을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해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K-컬처 연계 태권도 문화 · 공연 전문가 키운다

전주비전대, 전북자치도 RISE 사업 2차 공모 선정

전주비전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이근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2차 공모'에서 'K-컬처 연계 태권도 문화·공연 전문가 양성'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분야 중 하나로, 전북의 대표 문화자산인 태권도에 K-컬처를 결합한 지역특화형 문화산업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주비전대는 △태권도 품새·겨루기, 태권댄스, 태권퍼포먼스 등 문화·공연 실무교육 △LED·AR·VR,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 공연기술 융합훈련 △버추얼태권도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체험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K-컬처 산업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교육, 현장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K-태권도 문화공연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공연 콘텐츠를 선보여 관광객 참여를 확대하고, 전북의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태권도 문화·공연 전문인력 양성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청년 일자리 확대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확산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의 성과 창출이 전망된다.

이근상 RISE사업단장은 "RISE사업 선정으로 전북이 보유한 태권도 중심의 문화·관광산업에 K-컬처와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주형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1일 범한유니솔루션(주)과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 교육과정 공동 개발

전주비전대, 범한유니솔루션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1일 범한유니솔루션(주)과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범한유니솔루션(주) 박기욱 대표이사와 허환 연구소장이, 전주비전대에서는 우병훈 총장, 박효식 사업단장, 김혜미 학과장, 곽성운 교수, 정진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산업(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진로지도 등 산학협력 관련 제반 사항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이차전지, 수소, 탄소중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기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남원 국제드론제전서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 마무리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에서 남원 농특산물 활용한 개발 상품 백향과 뷰티젤리 등을 선보이며 학생 참여형 교육-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행사에서는 백향과 뷰티젤리 뿐 아니라, 3종의 기개발상품(원푸드 장추한알, 수퍼곡물 선식, 엔자임 그레인 토마토)도 선보이며 남원 농특산물 활용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특히, 남원 농특산물로 만든 제품 시식 및 판매 부스에서는 행사 기간 내내 시식과 구매를 위해 긴 줄이 어어지는 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어, 남원제일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체험형 미식관광 부스 운영을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의 기회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공립 중등교사 등 임용시험 경쟁률 6.1대 1

전북교육청,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공개… 1차 시험 내달 22일

내년 전북 공립 중등교사 등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1대 1을 기록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립은 326명 모집에 1,974명이 지원해(남 617명, 여 1,357명) 6.1대 1의 경쟁률(전년도 6.2대 1)을, 사립은 222명 모집에 702명이 지원해(남 287명, 여 415명)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공·사립은 548명 모집에 2,676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에서는 1명을 모집하는 식물자원·조경과목에 15명이 지원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보건(중등)(2명 선발)은 14.5대 1, 사서(3명 선발)는 13대 1로 집계됐다.

사립에서는 전북학원 역사과목 1명 모집에 69명이 지원해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1차 시험은 11월 22일 치러진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번 시험에서 응시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유의사항을 안내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영상은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중등임용시험을 통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과학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초 · 중등 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 교수)은 2026학년도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심화과정은 수학·과학·융합 분야에서 각 17명을 선발하며, 중등심화과정은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정보(SW) 등 6개 분야에서 각 15명씩 모집한다.

이 가운데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이나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꿈나무 키움교육' 오프라인 선교육을 이수한 학생, 그리고 사회통합대상자에게는 분야별 5명씩 우선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원서 접수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사이트(http://select.gifted.ac.kr)에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